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82期(2026.03.20) WWW.MINGHUI.ORG

한글판 1046호 minghui.or.kr



▲ 3월 14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제175회 성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에 참가해 주최 측과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주요 내용

- 【수련】 수련의 기회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5·13’ 원고를 쓰자
- 【수련】 해외 수련생의 글을 읽고 자신의 집착심을 찾다
- 【수련】 수련상 제고되지 않는 것은 흔히 자신의 인식이 제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 【수련】 꿈속에서 법정인간(法正人間)을 보고 놀라다
- 【수련】 수련생이 막 납치됐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차〉

■ 해외종합

- 뉴질랜드 쿠메우 박람회서 시민들 파룬궁 배워 3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7

■ 중국소식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4

■ 수련교류

- 수련의 기회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5·13’ 원고를 쓰자 17
박해 반대 과정에서 천목으로 본 것 20
선원 공연을 시청하며 얻은 수확과 깨달음 24
설 기간 선원 시청 경험 29
해외 수련생의 글을 읽고 자신의 집착심을 찾다 30
수련상 제고되지 않는 것은 흔히 자신의 인식이 제고되지 않기 때문
이다 32
‘현목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37
‘현목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를 읽고 한마디 39
꿈속에서 법정인간(法正人間)을 보고 놀라다 42
수련생이 막 납치됐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49
서유기 ‘형극령’의 시련에서 얻은 깨달음 51

■ 시사평론

- 사악한 마음을 품으면 향을 피워도 소용없다 57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쿠메우 박람회서 시민들 파룬궁 배워

[명혜망](뉴질랜드 기자단) 2026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이 오클랜드에서 열린 제103회 쿠메우 박람회(Kumeu Show)에 참가했다. 행사 기간 오클랜드 및 주변 지역에서 수많은 시민이 방문했다.

쿠메우 박람회는 현지에서 역사 깊은 지역사회 축제 중 하나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는 놀이기구, 무대 공연, 농장 동물 전시, 특색 있는 먹거리, 각종 경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전통 농촌 문화와 지역 공동체 행사를 즐겼다.

파룬궁수련자들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소개하며 다섯 가지 공법을 시연했다. 평온하고 부드러운 연공 모습에 많은 이들이 발길을 멈췄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공법을 배웠다. 한 참관객은 수련자들의 연공 장소에서 10미터 밖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한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전했다.

관람객 “연공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파룬궁 공법을 처음 접한 샬다는 이전에 이런 수련 방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 체험이 매우 신선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험인데 정말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이에요”라고 말했다.

샤다는 현대 생활의 빠른 리듬 속에서 직장과 가정일이 큰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런 연공과 가부좌 방식이 심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생활이 정말 바쁘는데 이런 활동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속도를 늦출 수 있잖아요.”

그녀는 또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과 달리 파룬궁은 동작이 결합돼 집중하기가 훨씬 쉽다고 덧붙였다. “가만히 앉아 명상하다 보면 졸릴 때가 많은데 동작이 있는 이런 수련 방식은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요.”

샤다는 웹사이트를 통해 파룬궁을 더 알아보고 관련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남편 크레이그도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수련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역사회 순찰대원 “파룬궁이 사회에 정의와 희망을 가져다줘”

지역사회 순찰대(Community Patrol) 소속 폴은 인터뷰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진상을 전해온 것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나서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 폴은 “공산주의는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으며 잔혹하고 부패한 제도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층부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하층민들은 고통받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에 파룬궁수련자들처럼 평화를 고수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은 줄곧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려 노력해왔는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정의를 지키고 진상을 전해야 합니다.”

폴은 중국공산당(중공)의 영향력이 해외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영국에서 일부 중국산 자동차가 군사기지와 정부 기관 출입이 금지된 사례를 들며 차량 내 통신 시스템이 중국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이미 확인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이 자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수련자들을 격려했다. “계속 노력해 주세요. 세계 어디에서 파룬따파를 수련하든 특히 뉴질랜드에서도 계속 이어가 주세요. 우리에게는 진상을 끊임없이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폴은 끝으로 “이것은 단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왔지만 저에게는 세 살, 아홉 살, 열두 살 된 아이들과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나빠진 세상이 아닌 더 좋아진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시민 “파룬궁은 사회에 매우 소중한 존재”

피터(Peter)는 인터뷰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오랫동안 사회에 공법을 소개하고 진상을 알려온 것에 찬사를 보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련하는 분들이 참 좋고 여러분은 사회에 매우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예요.”

중국에서 벌어지는 박해에 대해 피터는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던 방식이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 단체가 독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정부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압받아왔음을 언급했다. 또한 중국 수련자들이 겪는 박해에 깊은 동정심을 나타내며 “그분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구매 담당자 “진선인은 매우 훌륭한 가치관”

구매 담당자인 크레이그 워커는 파룬궁이 주창하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원칙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저는 동정심이 있고 인자함과 관용을 좋아합니다. 진선인은 정말 훌륭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이런 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요즘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파룬궁이 주창하는 이런 원칙은 사회에 매우 유익하며 이런 가치관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박해에 대해 크레이그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박해받고 있으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중공은 독재 정권이고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독재이며 박해를 낳습니다. 언젠가 중국이 가치관 면에서 더 민주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수련자들이 평화롭게 수련하고 진상을 알리는 일을 계속 해달라고 격려하며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계속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2026년 3월 첫째 주, 선원(神韻) 8개 예술단이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및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펼쳤다. 여러 국가의 관객들은 선원 공연이 세계 정상급 예술 수준으로 전 인류에게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보여주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관객들은 선원 공연에서 희망과 구원을 느꼈다고 밝혔다. 스페인 국회의원 알베르토 파브라(Alberto Fabra)는 “선원은 우리에게 중국 수백 년, 나아가 수천 년에 걸친 전통문화의 정수를 보여주었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공연에서 의지력, 에너지, 성찰의 힘과 순수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본 공연 중 진정으로 가장 훌륭한 공연입니다”라고 말했다.

빌바오 시의원 이니고 산티아고 수비사레타 아기레사발(Iñigo Santiago Zubizarreta Aguirrezabal)은 오프닝 첫 프로그램부터 비할 데 없는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다. “마치 신화 같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주제가 많이 존재하며,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역사 및 신화와 깊은 유대감을 맺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름다우면서도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사물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며, 우리를 더 높고 감성적이

며 더 신성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그는 “(선원이) 공산주의 이전의 중국을 보여주어 뜻밖의 기쁨이었고, 제가 기대했던 바였으며, 제가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산주의 중국 이전의 문헌을 읽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확실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라고 덧붙였다.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선원 신세계예술단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도 컬럼비아의 코거 아트센터 (Columbia Koger Center for the Arts) 에서 두 차례 공연을 열었다. 개막일인 3월 10일에는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원, 컬럼비아 시장과 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표창장과 축하 서한을 보내 선원예술단의 예술 및 문화 전승에 대한 탁월한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공연의 뛰어난 완성도를 극찬하며 각계 시민들의 관람을 환영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맥마스터는 축하 서한에서 “2026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열리는 선원 공연에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 공연은 여러분을 유구한 전통에서 현대의 영웅담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화를 아우르는 매혹적인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교하게 구성된 이번 공연은 재능 있는 음악가와 우아한 무용수 등 뛰어난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즐거움과 영감, 그리고 교육적인 경험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음악과 무용의 아름다움을 통해 고대 문명을 체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미국 선원예술단이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뉴욕시 데이비드 코크 극장으로 돌아와 2026년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최근 뉴욕주 제121선거구 공화당 주 하원의원 조셉 엔젤리노(Joseph G. Angelino)가 두 건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하

나는 선원예술단 설립자이자 예술총감독인 D.F. 감독에게 수여해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탁월한 예술적 성취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전파를 찬양했다. 다른 하나는 선원 창립 20주년과 뉴욕시 데이비드 코크 극장에서의 연례 공연을 축하하는 표창장이다.

3월 14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제175회 성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에 참가해 주최 측과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본부석을 지날 때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들어오는 대열은 파룬따파 천국악단입니다. 천국악단은 매년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팀은 파룬궁 연공팀입니다. 밝은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노란색 연공복을 입고 있습니다. 올해로 16년째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있는데, 올해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 캐롤라인 (Caroline) 역시 파룬궁수련생 대열을 매우 좋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룬궁수련생 대열은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진선인은 아주 좋으며 사람들이 따라야 할 준칙이에요. 진선인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월 15일 일요일 오후, 뉴욕 북부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의 주도인 고션(Goshen)에서 제40회 미드 허드슨 지역 성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 퍼레이드가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도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현수막팀, 선녀팀, 연공팀, 큰북 공연을 선보여 서양 축제에 독특한 동양 문화의 정취를 더하며 퍼레이드에서 눈길을 끄는 풍경이 됐다. 이탈리아에서 온 서양인 파룬궁수련자 코스타 스카브리노(Kosta Scabrin o)는 더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알고 혜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파룬궁은 아내와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고 우리는 많은 혜택을 얻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3월 7~8일 캐나다 위니펙 파룬궁수련생들이 ‘위니펙 여성 생활전’(Winnipeg Women’s Show)에 참가했다. 마리아(Maria)라는 여성은 부스를 방문해 “여러분이 주신 작은 연꽃을 차에 걸어둔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그것은 평화를 상징하고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일을 대변하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2월 13~14일, 파룬궁수련생들은 위니펙 RBC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위니펙 건강과 웰빙 박람회’에 참가했다. 행사 기간 파룬궁수련생들의 부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수련생들은 방문객들에게 파룬따파의 훌륭한 점을 소개하고, 파룬궁의 5가지 공법을 시연하면서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예년과 비교해 파룬따파에 대해 이미 들어본 적이 있다는 시민이 늘었으며 공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많은 이가 현지 연공장 정보를 문의하며 연락처를 남겼고, 현장에서 직접 공법을 배우는 이들도 많았다.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루마니아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시나이아에 모여 수련 체험을 공유했다. 동시에 이들은 홍보 부스를 설치해 파룬따파를 알리고,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믿는 수련자들이 중국에서 겪는 잔혹한 박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활동은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으며, 시민들은 이러한 도덕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를 희망하며 박해 반대에 동참했다. 부쿠레슈티에서 온 아드리안 그루브레아는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인들은 정말 훌륭하다. 그

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박해 주체에 대해 나는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혐오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이 따르는 가치관에 대해 그는 “모든 사람이 진선인 원칙을 따른다면 절대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사람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깨닫고 내면부터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초월적인 일이 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내면에서 비롯되는 이런 정신적 변화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2026년 설 기간, 네덜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은 헤이그 도심의 상업 지구인 흐로터 마르크트스트라트에서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시연하고 전단지 배포하며 시민들과 대화하는 진상 알리기 활동을 펼쳤다. 한 헤이그 시민은 파룬궁 단체에 대해 “여러분은 매우 평화로워 보이며, 거리의 소란스러운 인파와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라고 평가했다. 교양 있는 태도의 아프리카계 여성 두 명은 파룬궁 수련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무료 연공장 주소를 안내받은 한 여성은 자신이 바로 근처에 살고 있다며 기뻐했다. 정부 부처에서 근무 중이라 서명은 어렵지만, 그녀들은 거리에서 진상을 알리는 수련자들의 활동에 명확한 지지를 보냈다. 그녀들은 “여러분이 박해를 폭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라고 격려했다.

3월 6일부터 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컨벤션 센터에서 ‘마인드 바디 스피릿 페스티벌(The Mind Body Spirit Festival)’이 열렸다. 퀸즐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매년 이 성대한 행사에 참가해 왔다. 아름답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부스는 많

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으며, 그들은 부스의 배경 자료를 훑어볼 뿐만 아니라 수련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수련자들은 부스에서 평온한 파룬궁 5가지 공법을 시연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공법을 배웠고, 일부는 파룬궁 서적을 구매하며 현지 연공장의 연공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개리 (Gary) 는 제5장 공법을 마친 후 내면이 더없이 평화롭고 사람 전체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런 체험으로 인해 그는 그 수련자에게 여러 번 감사를 표하고 싶어 했다. 개리는 또한 집에 돌아가서 파룬따파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것이라고 말하며, “연공이 저에게 체험하게 해준 것은 내면의 평온입니다”라고 덧붙였다.

3월 7일~9일, 호주 빅토리아주의 골드러시 역사 마을 벨러랫에서 노동절 연휴를 맞아 연례 베고니아 축제가 열렸다. 3월 9일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가 개최됐으며, 파룬궁 단체도 다시 초청받아 참가했다. 파룬궁 단체의 공법 시연, 요고(腰鼓), 용춤 등 흥겹고 화려한 공연은 축복을 전하고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관중들의 연이은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다. 행사 진행자와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가 매우 소중하며 오늘날 혼란스러운 사회의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고, 파룬궁수련자들이 지역사회에 진상과 아름다운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페더레이션 대학교에서 행정 보조로 재직 중인 리아나(Liana)도 파룬궁 단체가 지역사회에 진선인 이념을 전파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순수한 에너지를 느꼈다는 그녀는 “이러한 이념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생

활한다면 문제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교육계 종사자이자 부모로서 그녀는 진선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 분야에 “100퍼센트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산둥성 웨이하이시 파룬궁수련자 텐셴옌(田仙言)이 2025년 7월 16일 택배기사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경찰에 납치돼 구금됐다. 2026년 1월 22일 룡청시 법원 판사 왕둥메이(王冬梅)는 그녀에게 부당한 징역 4년 반을 선고하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했다. 현재 텐셴옌은 웨이하이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텐셴옌은 웨이하이시 수문국 수석 엔지니어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히 일해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이후 텐셴옌은 신앙을 견지하고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괴롭힘, 납치, 가택수색을 당했다.

산둥성 지난시 라이우구 파룬궁수련자 환칭링(樂慶玲)이 2025년 7월 8일 지난시 경찰에게 납치된 후, 공안, 검찰, 법원의 사법모함을 받아 2026년 2월 10일경 불법적으로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녀는 산둥성 여자감옥 제13감구에 투옥됐다. 환칭링은 올해 59세로 1999년 7월 20일, 중공 전 두목 장쩌민(江澤民)과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시작한 후 수련을 견지하다 여러 차례 납치, 가택수색, 구류, 고문을 당했으며 가정이 해체되고 골육이 이별하는 아픔을 겪었다.

간쑤성 란저우시의 파룬궁수련자 왕하이옌(王海燕·71)이 2024년 3월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바이인시 징위안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돼 모함을 당했다. 2025년 9월, 바

이인시 바이인구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4년형의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왕하이옌은 즉시 항소했으나 2025년 12월, 바이인시 중급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을 유지했다. 현재 왕하이옌은 간쑤성 여자 감옥에 수감 중이다.

랴오닝성 푸신시 장우현의 70대 파룬궁수련자 송쭈샹(熊素香)이 2025년 9월 18일 장우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한 후 소식이 끊겼다. 2026년 3월 상순, 송쭈샹이 중공 푸신 지역 공안·검찰·법원의 밀실 조작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녀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파룬따파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송쭈샹은 이전에 세 차례 중공 당국에 납치됐다. 2008년에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여자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았다. 다음은 그녀가 중공에게 당한 박해 사실을 요약한 것이다.

랴오닝성 다렌시 간징쯔구의 77세 파룬궁수련자 등선성(董訓生)이 2025년 3월 19일, 파오야 구역 경찰 천쥘장(陳俊江)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그는 다렌시 구치소에 1년 가까이 불법 감금됐으며, 2026년 3월 5일 가족들은 등선성이 간징쯔 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판이 언제 열렸는지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허베이성 창저우시 등광현의 60대 파룬궁수련자 청구이쥘(程桂君)은 2024년 6월 19일 산둥성 더저우시 닝진현 공안국 경찰에게 성(省)을 넘어 납치돼 더저우시 구치소에 감금돼 박해당했다. 닝진현 법원은 이후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했다. 2026년 2월 5일, 그녀는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계속해서 박해

를 받고 있다. 청구이전은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납치, 불법 감금됐고, 두 차례 불법적인 강제노동 처분과 한 차례 불법 징역형을 받았다.

수련의 기회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5·13' 원고를 쓰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26년 '5·13' 원고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명혜망은 중국법회를 포함해 매년 두 차례 원고를 모집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투고에 참여했는데, 그중 두 편은 법회 교류 글로 발표됐고 한 편은 '5·13' 원고로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원고는 나중에 일반 교류 글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매번 정성을 다해 명혜망 원고모집에 임하는 과정은 바로 제가 착실히 수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매번 고비와 난을 넘고 층차를 제고하는 것은 가벼운 달리기처럼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 마음에 가로막혀 법을 깨닫지 못해 사부님의 반복적인 일깨움을 거쳐야 했고, 법의 기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돼서야 비로소 심성이 제고될 수 있었습니다. 경지가 승화된 후 그 고비와 난은 사부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만약 사후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속의 교훈과 법에 대한 깨달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수련 과정의 체득을 글로 써보고 법에 대조해 더욱 깊이 안으로 찾는다면, 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높이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차 법을 스승으로 삼아 자신의 수련을 지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명혜망 중국법회에 참가하고 '5·13' 경축 원고를 쓰는 것은 얻기 힘든 수련의 기회이므로 우리는 각별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느 해 중국법회 때 투고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원고모집이 끝난 후 저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학교 방학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회의를 열어 방학 숙제 상황을 결산하며, 숙제를 마친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부르며 일일이 상품을 나눠주었습니다. 두 몫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상품을 두 개 주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교장 선생님은 목소리를 길게 빼며 “○○○는 아무것도 없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깬 후 저는 사부님께서 법회에 투고하지 않은 저를 일깨워 주셨음을 깨닫고 몹시 후회했습니다.

작년 명혜망 중국법회 때 처음에는 투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제 수련 상태가 다른 수련생만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지를 내고 싶지는 않아서 저보다 정진하는 두 여성 수련생에게 글을 쓰라고 권한 뒤 제가 타이핑과 정리를 도와주려고 궁리했습니다. 미처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사부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느 방에서 출국 비자를 신청하고 있었는데, 여성 비자 심사관이 제게 호적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적부를 집에 두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한 여성이 두꺼운 단체 호적부를 들고 심사관에게 “그녀(저를 가리킴)는 단체 호적인데 여기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 심사관에게 “그녀에게 비자를 내주세요”라며 사정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심사관에게 “저는 단체 호적이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두꺼운 단체 호적부를 펼치더니 뜻밖에도 단번에 제 이름이 있는 페이지를 찾아내고는 꽤 기뻐하며 즉시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힐끗 보니 정말 제 이름이었습

니다. 하지만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가운데 글자 하나만 제 이름과 같고 나머지 두 글자는 달랐습니다. 저는 심사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를 도와준 두 친구가 상심할까 봐 걱정됐고, 동시에 고비를 넘기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 다.

꿈에서 깬 후 저는 어째서 이런 꿈을 꾸었는지 몹시 의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생생한데 제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는 걸까 생각하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다’라는 글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대충 얼버무려 넘어갔단 말인가? 자세히 찾아본 결과, 원고를 쓰기 싫어서 수련생의 정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투고를 대신하려 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수련생의 정리를 돕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답안지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체 호적부에 적힌 이름 중 한 글자만 제 것이었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해서 제 원고를 완성했고 마감일 닷새 전에 명혜 편집부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마음이 흥가분하지 않았는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심성이 법 속에 완전히 용해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고를 다시 정성껏 수정해 명혜 편집부에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무척 밝아 졌으며 호흡도 편안하고 순조로웠습니다. 밤에 또 꿈을 꾸었는데 제 몸에서 아주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배출됐습니다.

명혜망에 발표된 법회 원고들을 차례로 읽으며 수련생들이 보여준 순수하고 자비로우며 사심 없고 이타적인 경지에 감동했고, 끈기 있게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며 정진하는 수련생들의 상

태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게 됐습니다. 제 원고가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절 집착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심으로 이런 기회는 마땅히 이런 수련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신의 풍모가 대법을 더 잘 실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아를 내려놓았고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 기뻐했습니다.

법회 참가는 정말 얻기 힘든 수련의 기회입니다. 대법제자로서 명혜망 중국법회든 ‘5·13’ 원고모집이든 우리는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수련 중에 직접 겪고 목격한 신의 기적으로 장엄하고 신성한 대법의 경축 행사에 찬사를 올리고,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중생과 진선인(眞·善·忍)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세상에 희망을 전파해야 합니다.

박해 반대 과정에서 천목으로 본 것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오전, 한 무리의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불법 가택수색을 한 뒤 나를 파출소로 납치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 아무런 심리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나는 내심 매우 당황했지만,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불법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기회를 빌려 많은 진상을 알렸고, 그 후 작은 방에 갇혔다. 매 초가 고통스럽게 느껴졌지만 나는 끊임 없이 발정념을 하고 틈틈이 법을 외웠다.

갑자기 내 천목(天目)에 다른 공간의 모습이 보였다. 한 무리의 사악한 생명들이 미친 듯이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너 왜 여기까지 잡혀 왔는지 알지? 다 전생의 인과가 있는 거야. 네가 전생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아? 하하하하!” 이때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몇몇 사람들이 각각 기둥에 묶여 있었고, 내가 총으로 한 명씩 그들을 쏘 죽이고 있었다. 곧이어 그 사악한 생명들이 말했다. “다음 단계에 널 어떻게 요리할지 알아?” 나는 그들이 배치한 박해 과정을 보았다. 매 단계가 매우 상세했고, 마지막에는 내가 처참하게 죽는 결말이었다. 그들은 결말을 보여준 뒤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이 과정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넌 절대 넘길 수 없어, 불가능해!”

그제야 나는 ‘서유기’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깨달았다. 어쩐지 많은 대법제자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박해를 받는지 이해가 됐다. 원래 다른 공간의 요마귀괴(妖魔鬼怪)들이 업력의 빛을 이용해 진상을 모르는 경찰들을 조종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니 마음속에 절망감이 생겼다. 그러다 천천히 사부님이 떠올랐다. 사부님은 더 큰 능력이 있으시다는 생각을 이어가니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고, 경찰들에 대한 자비심도 생겼다. 지금까지 내가 경찰들에 대해 두려움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과 대립해 왔음을 인식했다. 사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일 뿐이며, 대법제자에게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대상들이었다.

나중에 그들은 나를 어느 곳에 가두었는데, 그곳에는 죄수 몇 명이 있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야기가 매우 잘 통했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궁(法輪功) 진상을 알리고 한 명씩 삼퇴(중국

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할지 확인했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다. 이때 나는 삼퇴에 동의하지 않은 그 사람의 하복부에 특수한 업력의 빛이 가로막고 있어 그가 구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오전 중 일정 시간 동안 모두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봐야 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그들이 텔레비전을 볼 때 발정념을 했다. 몽롱한 상태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 방에 있는 죄수가 바로 내가 총살했던 그 사람들이 아닌가?’ 나는 전생에 국군 장교였는데, 일본군 몇 명을 잡아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총살하는 ‘살항(殺降, 항복한 자를 죽임)’의 죄를 지었던 것이다. 그 순간 대오 각성하는 기분이 들었다. 구우주(舊宇宙)의 지혜는 부족하여 빛진 만큼 깊어야 하지만, 사부님께서 구세력의 박해를 역이용해 더 높은 안배를 하셨다. 사부님께서서는 내가 진상을 알려 사람들을 구하게 하심으로써 선해(善解)하도록 안배하신 것이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일념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모두 선해합시다! 좋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명백한 일면이 일제히 “좋습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가 박해받은 원인을 안으로 세밀히 찾아보았다. 하나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이다. 박해를 맞닥뜨리면 너무 겁을 먹었다. 또 하나는 수련생과 왕래하며 심득을 교류하긴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큰 의미가 없었고 안전상의 위험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명확히 깨닫자 사부님께서 내가 맞게 깨달았다고 일깨워주셨다. 사부님께서 의념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법을 얻은 이래로 한 번도 나태해진 적이 없구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칭찬한다! 나의 제자여!’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듣고 나는 울

었다. 대법제자가 바르게 걸을 때만 저쪽 공간의 생명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발정념을 시작했다. 인간 세상의 표면에서 내게 배치된 박해 과정이 매우 선명하게 보였다. 누가 나를 불법 심문하고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지, 시간과 장소, 인물까지 매우 상세했다. 너무나 생생한 장면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시 생각했다. ‘왜 발정념을 할 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걸까? 바로 이것을 제거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발정념을 했고, 그 영상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때 나는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다. 대법제자는 서로 다른 대궁(大穹)의 주(主)가 될 존재들이며, 미래의 역사는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미 역사를 바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몇 시간이 더 흐른 뒤, 나는 사실 내가 신(神)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사악한 박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사람이지만 신이 아니며, 신은 반드시 마귀를 이긴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많아 보일지라도, 이미 수련된 일면은 매우 강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다른 공간에서 나를 가두고 있던 담장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 보였고, 나는 거대한 화살 하나를 먼 우주로 쏘아 올렸다. 그 화살은 성계를 관통하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석방됐다. 경찰차를 타고 우리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이 경찰들은 전생 프랑스에서 루이 14세 휘하의 장교였던 나와 전쟁터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들이었다. 특히 경찰차를 운전하던 기사는 당시 내가 쏜 화살에 심장을 찔렸던 사람이었다. 원래 악연이었던 것이다! 하지

만 내가 최선을 다해 진상을 알렸기에 이 또한 선해됐다. 그 생애에서 나는 그들과 사적인 원한은 없었고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번 생애에서도 그들은 나를 납치하며 상부에서 시킨 일이라고 말했으니 인과응보인 셈이다. 대법제자는 오직 대법에 따라 행할 때만 모든 것을 선해할 수 있다.

발정념을 할 때 때로는 긴 시간을 들여도 돌파되지 않을 때가 있다. 안으로 찾아보니 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정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법제자 발정념의 기점은 이타적인 것이어야 한다. 경찰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더 많은 세상 사람이 구원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인간세상 중의 ‘자신’이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익을 내려놓고 법리에 입각하자 진심 어린 일념이 나왔고, 순식간에 장애가 뚫렸다. 내 공(功)이 단숨에 꼭대기까지 통하는 것을 보았다.

이상은 내가 박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천목으로 본 것으로, 층차에 한계가 있으니 부족한 점은 자비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원 공연을 시청하며 얻은 수확과 깨달음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올해 인터넷을 통해 선원 공연을 볼 수 있어 매우 기뻐했다. 몇 가지 느낀 점도 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명혜망 3월 5일 자 수련생의 교류 글 ‘중국에서 선원 공연 시청 시 위성 신호

교란에 대해'를 읽고 많이 공감했다. 선원 공연 시청 여부는 확실히 우리 수련 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해당 글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나에게도 모두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선원 공연을 본 것은 6년 전 수련생 집에서 본 것이 유일했다. 당시 시 외곽 지역인 그곳에서만 시청이 가능했다. 최근 몇 년간 명혜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됐지만, 몇 번의 시도에도 선원 공연을 보지 못했다. 올해는 간절한 마음으로 '천지행' 사이트에서 시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발정념을 한 끝에, 마침내 선달그믐날 밤 선원 공연의 성황을 시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정(情)이 강해 가족들을 불러 같이 보려다 보니, 수련생인 한 가족은 여행 중이라 시간이 없었고 비수련생인 다른 가족은 반 토막만 보고 말았다. 나는 이에 화가 나 마음속으로 그들을 원망했다.

정월대보름 재방송 때 다시 가족에게 권했지만 결과는 더 실망스러웠다. 결국 혼자 관람하게 됐다. 나는 화내지 않고 기분을 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 것처럼 일체 잡념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전념했다. 선달그믐날 집에서 볼 때는 물을 마시러 일어나는 등 다소 산만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번에 몸과 마음을 바로잡고 나니 느낌이 전혀 달랐다. 신체 표면 분자 세포들의 요동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감정이 평온해졌다. 무용수의 몸짓과 음악,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내면이 공연 현장과 연결되고 감동하는 것을 느꼈다. 특히 소프라노의 노랫소리는 마치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 매우 아름다웠다. 예전에는 가사의 함의를 모르면 성악에 공감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매우 아름다운 체험을 했다. 공연 전체를 보면서 지난번엔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를 느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고에너지의 미시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고 깨달았다.

서양 관객들이 선원에 충격을 받는 그 느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에 나 역시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선원은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예술적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은 그 속에서 일반인이 도달하기 어려운 초탈한 경지를 본다. 중국의 대다수 관객은 전문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수련을 통해 이룬 면, 즉 인간의 신성(神性)한 면은 그 에너지를 감지해 정화될 수 있다.

정월대보름에 선원 공연을 본 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선원 공연을 볼 때는 마음을 고요히 해 그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느꼈으면서, 법공부할 때 교란을 받으면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법공부야말로 더욱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전념해야 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법공부를 하며 다음 구절을 공부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이런 인식방법으로 중국 고대의 과학기술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고대의 과학은 인체·생명·우주를 겨냥하여 직접 이것을 향해 연구했기 때문에 걷는 것은 다른 갈래 길이였다. 그때 배우러 다니는 사람은 모두 가부좌를 중시했으며, 앉는 데는 자세를 중시했고, 붓을 잡는 데는 기를 운행하여 호흡함을 중시했으며, 각 업종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淨心)하고, 호흡 조절(調息)을 중시했는데 전반 사회는 모두 이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전법륜)

이 법 구절에 담긴 일부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중국 고대인은 신전문화(神傳文化)에 따라 배우고 생활하며 모든 일에서 정심(淨心)을 중시했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신의 뜻을 체득할 수 있고 언행이 신의 요구에 부합해 신의 은혜를 받으며 신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신전문화는 바로 신이 인간에게 남겨준 회귀의 길이다. 나는 법공부, 연공, 발정념 자세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인간의 것이 적어질수록 신성한 것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선원 공연을 통해 얻은 수확 중 하나다.

가족들의 반응은 사실 내가 제거하지 못한 사람 마음의 투영이었다. 무신론과 진화론의 변이된 문화 속에서 오래 생활한 이들은 심신이 오염돼 생명 본연의 상태를 잊은 채, 현대사회에서 보아온 춤과 노래를 예술이라 여기고 있다. 진정한 정통문화이자 신전문화를 접해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음식 본연의 순수한 맛을 잊고 식욕 충족에만 치중하는 것과 같다.

중국 전 국민이 노래방에 열광하던 1990년대, 자신과 주변의 많은 사람은 감정의 격렬함, 때로는 극단적인 감정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는 사실 생각 속의 변이된 관념이 표출된 것이었다. 중국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신에 대한 경외심을 지우기 위한 현대 의식을 주입받았다. 중장년층의 애창곡은 주로 젊었을 때 불렀던 통치자를 찬양하는 정치적 노래나 증오를 부추기는 투쟁적인 노래였고, 신세대는 개인의 애증과 개성을 숭배하는 노래에 젖어 있다. 우리와 가족 모두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평온함으로 신성을 표현하는 정통 성악과 예술 형식은 무신론과 현대 과학 관념의 영향을 받은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무용들도 전통을 깨고 소위 ‘혁신’과 ‘독특함’을 내세워 사람의 정(情)과 집착에 영합하며 시선을 끌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하면 신성(神性)과는 거리가 멀다.

선원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전의 신전문화를 표현해 인간의 선량한 본성을 깨우고, 법을 위해 온 중생이 창세주의 부름을 듣고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 형성된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면 신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얻을 수 없다. 아쉽게도 나는 잘하지 못했고 가족들도 귀한 기회를 놓쳤다. 이번 관람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절감했다.

여기서 사부님의 “홍음(5)”중의 시 한 수를 나누고자 합니다.

착한 백성을 선택하네

아름다운 선녀 우아한 춤 북소리 현악소리 울리는데
 옥 같은 품성 표표히 고품이 펼쳐지네
 아름답고 사랑스런 모습 운치(韻)에서 나오고
 뒤집고 움직이고 회전하고 멈추노니 천국의 빈(嬪)이로세
 건곤이 바르게 돌아오니 단비를 뿌리고
 눈 가득 찬란함 한(漢)나라 진(秦)나라로 돌아간 듯
 선원이 사람 구하는 줄 누가 알리요
 못 신은 이미 착한 백성 선택하고 있다네

설 기간 선원 시청 경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올해 설날 당일 선원(神韻)을 보려 했으나 위성 안테나(소형 접시)로는 시청할 수 없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처음에는 연결이 다소 불안정했으나 30분 이후부터는 매우 안정됐다.

정월 초하루 오후에 공연을 한 번 더 시청하려 했으나, 위성 안테나가 완전히 먹통이 돼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어차피 볼 수 없다면 오늘 시청 여부에 연연하지 말고, 정념을 발해 교란을 제거하자. 오늘은 전적으로 이 일에 집중하자’고 생각했다.

정념을 발할 때 사부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중공사당 그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 자신의 번거로움은 그나마 적어진다. 특히 그것이 대법제자에게 어떤 나쁜 일을 했다 하면 곧 그것 자신의 추한 일로·실패한 일로 되는 동시에 대법제자를 도와 일을 이루는 결과로 변한다.” (각지 설법 8-2008년 뉴욕법회 설법)

나는 정념을 발하며 중국공산당(중공)이 세상 사람들과 대법제자들의 선원 시청을 방해하려 투입한 모든 인력과 물력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선원과 대법제자를 더욱 잘 이해하고 사부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이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수혜를 입는 요소로 작용하게 해달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방해를 획책하고 조종하며 작용하는 모든 요소를 전부 제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그것들이 스스로 책임지게 했다.

그렇게 공연 종료 30분 전까지 정념을 계속했다. 가족이 식사

하라고 불리서야 비로소 멈췄다.

비록 선원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다른 공간의 어떤 정보도 느끼지 못했지만, 목표를 확고히 한 뒤 내면이 매우 굳건해지고 정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얇은 깨달음이나마 수련생들과 나누고자 적어본다.

해외 수련생의 글을 읽고 자신의 집착심을 찾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오늘 명혜망에서 해외 파룬궁수련자의 글 ‘안으로 찾으며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다’를 읽고 나 자신의 강한 집착심인 호기심을 발견했다.

그 수련자는 글에서 자신의 호기심이 사실 ‘관심’으로 위장돼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나에게 이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바로 깨달았다. 나는 이 방면에서 매우 부족했다. 호기심이 강해 늘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끼어들었으며, 대화 범위 밖의 흥미로운 내용을 질문해 상대방을 난처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강요한 질문에 답해야 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한번은 동료가 택지 교환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집값과 인테리어 비용이 큰 부담이었다. 그녀의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연달아 질문을 던졌다. “시댁에서 안 도와 주나요?”, “친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데 안 보태주나요?”, “집은

몇 평인가요?”, “전부 얼마에 샀나요?”, “부부 월급은 얼마인가요?” 등이었다. 그녀는 모두 대답했지만, 이는 그녀가 하려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 호기심이 유발한 질문들이었다. 당시 나는 매우 ‘관심’ 있는 척했다. 지금 보니 이는 선하지 못한 표현이었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단지 관심이라는 핑계로 강한 집착심인 호기심을 은폐했을 뿐이다.

호기심 뒤에는 더 좋지 않은 마음인 남의 일을 구경하려는 마음,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이 잘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남이 잘 안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강한 질투심이다. 반드시 이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니 수련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런 좋지 않은 사람 마음이 남아 있어 정말 부끄럽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죄송할 따름이다. 이제 정말 심성을 제고해야 할 때다.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안으로 찾고 자신을 깊이 파헤쳐 아직 제거하지 못한 집착심을 찾아내 없애야 한다. 법공부를 많이 하고 정념을 굳건히 해야 한다.

교류 글을 통해 자신의 호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연관된 모든 좋지 않은 마음을 찾게 해준 수련생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함께 정진하고 제고하며, 법을 스승으로 삼아 안으로 찾고 사부님을 도와 정법의 신성하고 위대한 사명을 원만히 완수하자!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법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상 제고되지 않는 것은 흔히 자신의 인식이 제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나온 후 법을 외우고 베껴 쓰며 얻은 몇 가지 체득—

글/ 중국 대법제자 산람(山藍)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감옥에서 나온 지 벌써 4개월여가 됐다. 막 돌아왔을 때는 몸이 매우 허약했다. 그곳에서 3년 넘게 지내며 연공도 법공부도 따라가지 못했다. 평소 먹는 것도 부실한 데다 매일 그 안에서 장시간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처음 연공을 시작했을 때, 특히 제2장 공법을 연마하거나 가부좌를 할 때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곧게 펴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제4장 공법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

막 돌아오니 우리집은 온통 엉망진창이었다. 내가 집에 없을 때 아내 혼자 아이를 돌봐야 했고, 내가 투옥되자 그녀도 집안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 나는 중고 가전 사업을 했는데 층마다 내 물건이 가득했다. 딸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결혼식을 올리려 했기에 집에서 잔치를 열려면 즉시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며칠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몸을 써서 일했다. 몸에 살이 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물살이었고 사실 몸은 아주 허약해서 힘이 전혀 없었다.

겨우 딸을 시집보내고 여유가 생기자 나는 시간을 아껴 법공부와 법 외우기, 법 필사에 집중했다. 몸은 빠르게 회복돼 금세 제2장 공법을 다시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릴 수 있었다. 한동안 법공부를 하면서 내가 매우 빠르게 제고되고 있음을 느꼈고 자신감

도 크게 생겼다. 생각 또한 퇴폐적인 상태에서 바르게 돌아왔다.

최근의 체득을 써서 여러분과 교류하며, 현재 상태가 좋지 않거나 난관 중에 있는 수련생들이 법공부를 중시하게 하고 싶다. 수련생은 평소 매일의 삶과 모든 일을 공부한 법과 연계해야 하며, 일에만 파묻혀 생각을 사람의 인식에 머물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늘 어떤 문제든 안으로 찾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아침과 저녁 잠들기 전에도 회상하며 법에 비추어 깨달아야 한다.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즉시 바로잡아야 하며 생각했다면 바로 실행해야 한다. 더는 꾸물거리거나 의지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선 연공부터 시작했다. 예전에는 연공할 때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동작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즉시 바로잡았다. 연공할 때 끊임없이 자신을 일깨우며 사부님의 구령을 따라갔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잡념이 생길 때는 끊임없이 사부님의 법을 외웠다. 또한 각 공법 앞의 구절을 모두 숙지했다. 각 공법에는 네 구절의 구절이 있다. 연공할 때 사부님께서 구절을 읊으시면 내 머릿속도 그에 따라가야 한다.

가부좌와 발정념을 할 때도 몸을 바로 세워야 하며 더는 삐딱하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수련은 후세 역사의 참고가 되어 하기에 우리의 매 걸음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발라야 함을 깨달았다. 대법제자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원용해야 하기에 표준은 더욱더 높아야 한다. 매일 밤 12시 발정념도 견지하기 시작했다. 평소 시간이 날 때 추가로 발정념을 더 했고, 다른 교란이 느껴질 때도 별도로 발정념을 했다.

막 발정념을 강화하기 시작했을 때는 육신이 매우 힘들고 불편했다. 그렇게 2~3개월을 견지하자 더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게 됐다. 몸도 발라졌고 발정념을 할 때 멍해지거나 손바닥이 쓰러지는 일도 없어졌다. 정념에 위력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우리 집 환경도 점차 좋아졌다.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아들도 더는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

나는 2010년에 법을 얻었고 2022년에 감옥에 갇혔다. 우리집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했고 법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법에 대한 인식도 얕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법공부를 충분히 중시하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 매일 법공부를 숙제하듯 끝냈고 법리에 대해 잘못 깨달은 부분도 많았다.

원래 우리집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돈을 벌지 못했다. 그때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전생의 인연 때문인지 아내와 오랫동안 다투며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다. 파룬따파를 배운 후 나는 아내와 수련을 통해 자신의 인식을 바꾸었다. 이후 아들이 태어나면서 가족 관계가 화목해지기 시작했다. 첫째가 딸이었기에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마음이 온통 아들에게 쏠렸고, 덕분에 나는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할 시간이 많아졌으며 사업도 잘돼 저축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당시 내 일은 여름에만 조금 바빴고 다른 시간은 아주 한가했다. 경제 조건이 좋아지니 아내와 가족들도 내가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 결국 전단지들 얼마나 많이 배포했는지를 수련의 성취처럼 여기게 됐다. 매일 자료를 인쇄하고는 밖으로 나가 배포했다. 처음 나갈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시간이 흐르자 담이 점점 커졌다. 나중에는 낮에도 나가서 사람을 보면 진상을 알렸다. 사실 당시에는 법공부가 뒷받침되지 않아 진상을 잘 알리지 못했고 삼퇴(중

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시킨 사람도 적었다.

착실한 수련이 따르지 않으니 일을 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이 강해져 자아가 심하게 팽창했다. 박해의 형세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당시 나는 혼자였기에 다른 수련생들과 연락하지 않아 자신의 많은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 사고가 나기 전 사부님께서서는 이미 내게 명확한 일깨움을 주셨다.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 자신과 법에 대조해 한참을 깨달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부님의 명확한 일깨움조차 깨닫지 못했다.

예를 들어 2~3번 정도 사부님 법상에 향을 올릴 때 향이 절반쯤 타다가 꺼진 적이 있었다. 나는 향이 습기를 머금은 줄 알고 햇볕에 말리기까지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또 한 번은 스쿠터를 차에 싣고 읍내로 나갔는데 두 번이나 스쿠터 열쇠를 챙기지 않았다. 사고가 나던 날 밤, 원래 두 묶음의 진상 자료를 준비했었다. 오후에 이미 한 묶음을 배포했는데 가져갈 때 한 묶음을 깜빡했다. 밤에 다시 그곳에 가서 남은 자료를 배포하다가 결국 납치됐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인데 당시 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떻게 같은 장소에 하루 두 번을 갈 수 있겠는가?

이번에 법공부를 할 때는 통독 방식을 바꿔 법 외우기와 법 필사를 병행했다. 먼저 법 한 단락을 숙독한 후 외웠다. 아주 달달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틀림없이 외울 수 있게 했으며 그다음에 한 번 베껴 썼다. 이렇게 하니 생각이 딴 데로 흐르지 않았다. 4개월 동안 ‘전법륜’을 한 번 베껴 썼고 이어서 ‘정진요지’를 베껴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 사유에 큰 변화

가 생겼고 많이 제고됐음을 느꼈다. 많은 법이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새로웠고 법의 깊은 함의도 조금씩 깨달았다. 가장 좋은 점은 법공부를 할 때 더는 졸리지 않다는 것이다. 수면 시간은 줄었지만 연공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밤에 연공하면 기운이 없었던 것과는 달랐다.

법공부가 따라오니 평소 사부님의 일깨움을 더 많이 깨닫게 됐다. 진정으로 깊은 법리를 깨달았을 때의 느낌은 법의 표면만 볼 때보다 훨씬 깊고 다르다. 지금 나는 법공부를 할 때 그런 깨달음의 느낌이 없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 자신을 찾는다. 내 마음이 짐이 바르지 않은지 혹은 법공부를 할 때 바르지 않은 염두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핀다. (특히 계속 틀리게 외우는 부분에 주의하는데, 그 단락의 법은 흔히 내가 수련을 잘하지 못한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깨달을 수 있었고 ‘자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법공부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는 흔히 눈물을 멈출 수 없으며 때로는 내면에서 파도가 치듯 큰 진동을 느낀다. 이제 나는 수련이 제고되지 않는 것은 흔히 자신의 인식이 제고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인식이 제고되면 그 고비는 넘기기 쉽고 그 마음도 버리기 쉽다. 인식이 제고되지 못한 채 사람의 인식에 간혀 있기에 난관이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적으며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들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란다. 사부님의 가지에 감사드립니다!

허스(舍十)

‘현목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글/ 지린성 대법제자

[명혜망] 나에게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 다들 왜 ‘현목기(玄木記)’에 열중하는 것인가? 나는 수련이 지극히 엄숙하며 길을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목기’는 정견망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상식적으로는 말할 자격이 없겠지만, 수련 중에 마주치는 일은 우연이 아니며 모두 수련과 관련이 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우겁’(蒼宇劫)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흥분해 반복해서 들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었는데, 나중에 사부님 평어가 나온 후 더는 듣지도 말하지도 않게 됐다. 둘째, 아래로 내려오며 인연을 맺은 것들은 모두 구우주의 일이며, 자신의 사유를 ‘빛을 지면 갚아야 한다’는 구우주의 이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제작년부터 듣기 시작하더니 내가 듣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어떤 이는 한 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었으며, 많은 혜택을 입고 깨달았다며 내용 중 몇 가지 일을 이야기 해주기도 했다. 올해 초 수련자들이 권하기에 밥 먹는 시간을 이용해 잠깐 듣기도 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많은 수련자는 모이기만 하면 ‘현목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수련자들이 모였을 때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일, 즉 어떻게 법공부를 하고 발정념을 하며 사

람을 구할지, 어떻게 안으로 찾고 심성을 제고할지를 위주로 교류해야 한다.

사부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셨다.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 법에서 수련하니”(홍음3-수련형식). “법은 일체 집착을 타파할 수 있고, 법은 일체 사악을 타파할 수 있으며, 법은 일체 거짓말을 타파해 버릴 수 있고, 법은 정념(正念)을 확고히 할 수 있다.”(정진요지2-교란을 배제하자)

우리는 매일 법공부를 하지만 막상 일을 당하면 법을 떠올리지 못하고 심성을 제고하지 못할 때가 있다. ‘현목기’는 소설이지 법이 아니다. 만약 막 법을 얻은 사람이나 일반인이 듣는다면 무신론을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수련한 지 25~26년이나 된 노수련자들이다. 그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구우주의 신들은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우주 대법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구우주의 이치에 따라 고비와 난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정법의 이치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고난 속에 빠지게 된다. 신우주의 이치는 바로 안으로 찾고 심성을 제고하며 매사에 법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는 것이며, 사부님과 계약을 맺고 온 목적대로 사부님의 정법을 돕고 대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사부님께서 삼계 밖으로 밀어 올려주신 생명이자 곧 돌아갈 신인데, 소설 속에 빠져 그것들에 열중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가?

나는 단지 개인적인 견해를 나누며 수련자들과 교류하려 한다.

‘현목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를 읽고 한마디

— 대법제자가 봐야 할 것은 명혜망과 대법 —

글/ 위안산(遠山, 중국)

[명혜망] 오늘 명혜망에 실린 글을 읽었다. 한동안 일부 수련자들이 ‘현목기(玄木記)’에 집착한다는 내용이였다. 나는 많은 수련자와 함께하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고, 이 소설도 읽지 않았지만 제목만 들어도 꽤 흥미롭게 느껴졌다. 내 예전 경험과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한다.

나는 불법적으로 구금돼 박해받기 전에는 그다지 정진하지 않았다. 그때는 법공부에 대한 인식도 깊지 않았고, 사부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법을 실증하는 일도 지금처럼 신성감이나 사명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는 자신을 신수련생이라고 여기며, ‘7·20’ 이전에 법을 얻은 제자와 같이 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련에 느슨해지고 세상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래도 대법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혼자 인터넷을 통해 명혜 라디오를 들곤 했다. 특히 정견망(正見網)과 NTD TV 사이트에 자주 들어갔다. 그 무렵 명혜 라디오에서 방송한 ‘밀레르빠 수련 이야기’ 라디오극을 즐겨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무척 마음을 끌었다. 영상이 아니었지만 방송 내용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집안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자주 들었고, 많이 듣다 보니 대사를 꽤 많이 외울 수 있었다.

그러다 나중에 큰 교란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

지는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거의 10년 전 일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것이 비록 수련 이야기이긴 해도 불이 법문(不二法門) 요소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다른 종교의 이야기로, 그 종교의 정보가 들어 있어 법공부, 연공, 세 가지 일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완전히 삭제하고 그 뒤로는 전혀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야 상태가 서서히 좋아졌다.

이 일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 수련의 근본은 대법이라는 것이다.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고 받아들이고 싶더라도, 거기에 자신의 관념과 맞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법이 아니다. 우리가 원만히 수련할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은 오직 하나, 사부님과 사부님의 법뿐이다.

우리 대법제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를 명혜망과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정진하는 많은 대법제자들이 명혜망만 본다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내용은 일반인을 위해 쓴 것으로, 글의 관점과 목적이 다르다. 일반인이 흥미를 갖고 진상을 이해해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쓴 것이다. 그런 글은 본래 수련 글이 아니며 대법 수련인을 위해 쓴 것도 아니다. 수련인이 관심이 있다면 기껏해야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그것에 열중한다면 그 역시 집착심이다!

다소 강한 말이지만, 모두 《정진요지》 경문을 한 번 더 읽어 보면 이해할 것이다. 나는 방금 《정진요지》를 한 번 필사했는데, 사부님께서 《정진요지》를 열 번 읽으라고 하셨다. 그 안의 법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난다. 어떤 기록에 집착하는 것과 예언에 집착하고, 트럼프 재임에 집착하고, 당시 소설에 집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런 것에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쏟는 것은 수련인에게 교란이다.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안의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 대법제자들 사이에서 교류하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는 법을 파괴하는 조짐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인식상으로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대법제자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어떤 집착심이 있는지 안으로 찾아야 한다.

수련생 중에 이런 사람이 광범위하게 많아지면 대법 수련생의 수련 정진에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악한 요소들이 호시탐탐 허점을 노리며 이를 더욱 확대시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부님의 정법과 대법제자의 수련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처음 법을 얻었을 때는 정견망을 자주, 열심히 봤지만 지금은 거의 보지 않는다. 그 안에는 환생과 윤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수련할 인연과 시간이 도 대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나 자신은 얼마나 수련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 수 없다. 우리의 사전(史前) 서약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가? 역시 알 수 없다.’ 우리는 세 가지 일과 별 관계없는 것들에 시간과 집중력을 낭비할 여유가 전혀 없다.

여기까지 쓰다 보니, 무슨 이유인지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아마도 사부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 같다. 수련의 엄숙함에 대해, 199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대법제자라면 누구나 알 것이며, 박해를 받은 대법제자라면 깊이 인식할 것이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으며,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다.”(각지 설법 13-2015년 뉴욕법회 설법)

우리 수련 제고의 유일한 보장은 대법이다. 대법이 아닌 것, 수련생이 수련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어떤 것들, 특히 명혜망에 실리지 않은 것들에 집중력과 시간을 쏟는 것, 특히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쏟는 것은 모두 법에서 벗어나고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정법 수련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상은 나의 작은 소감이다. 진심 어린 말을 담아 수련자들과 교류하고자 썼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자들의 자비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에 감사드리고 수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꿈속에서 법정인간(法正人間)을 보고 놀라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며칠 전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내용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꿈속에서 사부님께서 짧은 신경문을 발표하시어 전 세계 대법제자에게 모월 모일에 법정인간(法正人間)이 시작됨을 알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백지에 검은 글씨로 쓰인 신경문을 받았을 때 첫 일념은 ‘수련이 곧 끝날 수 있겠구나, 나는 그저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 안도했습니다. 그 후 저는 조금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며, 매일 무엇을 먹을지 궁리하거나 잠을 자는 등 수련 상태가 평소와 다름없이 매우 나태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네 차례의 발정념조차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갔고 법정인간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인간의 순간이 다가오자 하늘에 큰 빛이 나타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즉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긴박한 사업이든 바쁜 업무든 이 순간에는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당시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류는 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으며 모두가 눈을 떴지 못한 채 하늘의 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이 인간 세상에 나타난 그 순간 인간의 재물, 지위, 권력이나 인종, 문화, 연령, 성별, 혹은 사람 사이의 가깝고 먼 관계나 은혜와 원한, 정 등 그 모든 것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히 평등했으며 단지 ‘사람’이라는 층차의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신의 빛 앞에서 비천하고 미소했으며 신의 심판과 안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은 더는 인간 세상의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구석구석을 꿰뚫고 비추는 금빛 광채였으며 에너지가 거대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하늘을 뻑뻑하게 가득 채운 방대한 수의 온갖 신들이 색깔이 변하는 상서로운 무지개색 구름 위에 떠 있었습니다. 어떤 신은 천차를 몰고 천마의 고삐를 잡은 채 창세주께서 명령을 내려 지상의 대법제자를 데리러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신은 대규모 악단처럼 악기를 연주하며 천지에 마음을 꿰뚫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또 차

림새가 각기 다르고 서로 다른 법기(法器)를 지녔으며 등 뒤의 황금 보좌와 머리 위의 광환이 제각각인 불(佛)과 도(道)들이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정지한 채 인간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은 각자의 직책이 있어 창세 주의 지시만 떨어지면 즉시 행동할 태세였습니다.

사부님께서 거대한 형상으로 하늘에 나타나셨는데 상반신이 거의 하늘의 절반만큼 컸고 하반신은 상서로운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으며 안색은 엄숙하셨습니다. 사부님 뒤의 신들은 콩알만큼 작게 보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부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원문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일부 내용만 기억하는데 대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연장해 오신 시간은 무량한,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감내로 일초 일초를 바꿔오신 것입니다. 사부님의 감내가 없었다면 시간은 단 일초도 늘어나지 않고 즉시 끝났을 것이나, 만약 그랬다면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전부 훼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법제자가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시간을 허비해 대량의 중생이 구원받지 못하게 됐으며 대법제자 자신의 수련에도 많은 누락을 남겼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중생에 대응하는 우주와 대법제자 개인의 수련에서 잘 닦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는 대법제자 세계안의 중생은 영원히, 다시는 만회할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주에서 구원받은 부분이 번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빛의 강약이 각기 다른 별 같은 빛의 점들이 뻑뻑하게 모여 있었는데, 점 하나하나가 하나의 행성이나 우주 혹은 천체였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생존하는 터전이었습니다. 반면 구원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응하는 부분과 대법제자가 잘 닦지 못한 부분은 마치 블랙홀처럼 칠흑 같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체 우주는 마치 검은색 판 위에 갈기갈기 찢겨 여러 조각으로 나뉜 천을 올려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된 곳은 확실히 좋았으나 잃어버린 부분은 보기에 충격적일 정도였으며 그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법정인간의 그 순간이 오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 세상의 미혹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고 수련과 사람 구하기도 마감됐습니다. 저는 갑자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과 중생 구도에 쓰지 않고 낭비한 시간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단지 제가 저 자신을 느슨히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 저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의 상태가 좋지 않아 매우 조급해하시며 일깨워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막 깨어났을 때는 어느 날에 수련이 끝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매 분 매 초를 아껴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더 많은 수련생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명의 수련생이라도 이를 깨닫고 서둘러 잘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에서 수련과 사람 구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에게는 수련 중의 누락을 보충할 기회가 있으며, 꿈속에서 구원받아야 했을 그 생명들과 우주들은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후로 저는 낮잠을 자지 않았으며 매우 졸려도 견디며 바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밥도 가급적 빨리 먹고 한담을 나

누지 않았으며 수련 제고 외의 일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 시간을 아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마치면 즉시 다음 일을 했고 단 1~2분이라도 주저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끝낼 수 있는 일은 가급적 내일로 미루지 않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을 마친 후’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을 필사하고 외우는 강도를 높였습니다. 누구도 저를 교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저를 교란할 자격이 없으며, 저는 반드시 오늘 필사해야 할 분량을 마치고 오늘 외워야 할 내용을 다 외울 것이라고 반복해서 다짐했습니다. 비록 글자 하나를 틀려 한 페이지 전체를 다시 필사할지언정 포기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필사할 때는 다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원만법』을 외우고 싶었지만 다른 설법을 보는 진도에 지장이 있을까 봐 걱정하자 어머니께서 “하고 싶으면 해, 언제 다 할지 고려하지 마”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심을 내리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한 문장씩 외웠는데 매일 빠르게 여러 페이지를 외울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가지(加持)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고 앞부분을 다 쓰고 졸음이 밀려와 잠시 쉬려고 누웠을 때 귓가에 여러 목소리가 끊임없이 저를 독촉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잠자지 마라, 연공하러 가라, 너는 아직 안일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고 아직 마치지 못한 일이 있으니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연공을 시작하자 그 소리들은 사라졌습니다. 가끔 한 목소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연공을 잘하라고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를 때는 즉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원고를

쓰다 곤경에 빠져 써 내려가지 못할 때는 즉시 여러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조언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혹은 명혜 라디오 중의 어떤 한 문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래 저는 이 일을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께서 감동해 수련생들과 이 일을 교류하라고 두 차례나 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저의 몇 가지 문제점을 명확하고 투철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부님의 일깨움이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원고를 쓰거나 말을 할 때 언어가 더 생동감 있어야 하며, 어떤 일을 당해 참는 동시에 대법의 위엄도 체현해야 하고, 자신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아 자신의 전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등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아픈 곳을 짚어 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즉시 문제를 찾고 방향을 가리켜 주시어 제가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아끼게 해 주셨습니다. 아낀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2장 공법인 파룬짱파(法輪樁法)를 연마할 때 가볍고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집 벽에는 그림 한 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수련생이 보관을 잘못해 찢어진 것이라 원래 폐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련생에게서 그 그림을 받아와 테이프로 보수한 후 어머니와 함께 벽에 붙였는데 손상된 곳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의 선녀 누나가 저에게 고마워하며 비파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또 저는 하늘의 구름 바다에서 용이 사람 형상으로 변한 천병(天兵)을 만나 장창(長槍)춤을 보여달라고 청했고, 바다로 내려가 용왕을 만났으며, 바다에서 다른 공간을 통해

단숨에 하늘로 올라가 동굴 속의 어떤 득도한 진인(眞人)을 만났는데 그는 저에게 어서 연공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저는 어린 도동(道童)의 모습이 됐고 사부님의 높고 위엄 있는 순금의 불체(佛體)를 보았습니다. 저는 가부좌하신 사부님의 무릎 높이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합장하며 경배하자 사부님께서 손을 뻗어 제 미간을 한 번 가리키셨습니다. 즉시 육신의 천목(天目) 부위에 기묘한 느낌이 들면서 천목 통로가 또렷하게 보이고 살이 안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저는 기뻐서 계속 웃음이 났지만 내심은 평온하고 상서로웠습니다. 사부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 저의 상태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정법이 아직 몇 년, 십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은 남았을 것이라며 방종하고 속인의 생활을 즐겨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꺾가에서는 끊임없이 시간을 아끼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고 쓰기를 포기하고 싶거나 이 모든 것이 가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한 초등학생이 세상을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 뒤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깨우치는 것임을 번쩍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사실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수련하고 사람을 구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서 원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련생 여러분, 사부님께서 연장해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중생이 구원받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수련의 기연(機緣)과 자신을 소중히 여깁시다.

수련생이 막 납치됐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생이 막 납치된 후, 외부에 있는 수련생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우선, 가족과 소통해 구조에 협력해야 합니다. 수련생 가족에게 구체적인 담당자 성명, 경찰번호, 직책 등의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며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가족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입니다). 이는 이후의 구원 및 구조 작업을 위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가족이 파출소에 가서 사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에게 “제 가족은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우선 《시사평론 요약: 파룬궁 수련은 합법, 파룬궁 박해는 유죄》(50호령과 39호 문건 첨부)를 가져가 경찰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 단계의 법률 문서(《사건 취하 신청서》, 《기소 심사 불송치 신청서》)를 준비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는데(이 역시 가족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입니다), 이는 진상을 알리고 경찰을 구원하며 사악을 해체하는 작용을 합니다. 가족은 또한 12389 전화를 이용하거나 12389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고, 12315 시장 핫라인에 전화해 경찰이 선량한 사람을 체포한 것을 신고하며 공안의 불법 수사에 대

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현지 수련생들은 사악을 폭로하고 공개하는 강도를 높여 정체(整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수련생들은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현지 메일함에 보내, 다른 항목을 하는 수련생들이 협력해 정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수집한 정보(진실하고 정확해야 함)를 바탕으로 신속히 명혜망에 올려 악을 폭로합니다. 해외 수련생들은 진상 전화로 협력하고, 현지 수련생들은 진상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해 광범위하게 부착하며, ‘명혜주보’ 지방판 등 소책자를 제작해 대대적으로 배포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모든 수련생이 정체로 협력해 강력한 정념을 내보내고,神通(神通)을 운용해 불법적으로 구금된 수련생들을 구조해야 합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대법제자들 마난(魔難)을 겪지만 휘멸되는 것은 중생이라네”(홍음3-세세생생 금생을 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해체하는 것은 곧 중생을 구하는 것이며, 사악이 중생을 이용해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함으로써 중생을 휘멸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넷째,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 수련생을 접견하게 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통의 다리를 만들어 수련생을 도와야 합니다. 안팎으로 협력해 정체를 형성합니다.

5. 다섯째, 시·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시·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인원의 정보를 수련생들이 수집해 주길 바랍니다. 이들은 배후의 검은 손이므로, 이들에 대한 진상 알리기와 폭로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들의 사무실 주소, 자택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책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때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큰 압박을 느낄 수 있으므로, 수련생들이 많이 이해하고 선의로 일깨워 주며 법에서 교류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의 짧은 인식이니, 부족한 점은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서유기 ‘형극령’의 시련에서 얻은 깨달음

— 평범한 일상 속에 안주하지 말라 —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형극령(荊棘嶺)’은 《서유기(西遊記)》 제64회에 나옵니다. 당승(唐僧, 삼장법사)과 제자들이 경전을 구하러 가며 겪은 81가지 시련 중 형극령은 52번째 시련으로, 전체 과정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이 시련은 많은 사람에게 그리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극령에는 하늘을 뒤덮을 만큼 강력한 마왕도, 잔혹한 고문이나 박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곱보기에 아주 평온하고 상서로운 분위기 속에서, 당승에게 극진히 공경을 표하는 초목의 정령들이 시를 읊고 도를 논하는 것을 빌미로 가장 은밀하고 부드러운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네 명의 나무 정령은 선풍도골(仙風道骨)의 노인으로 변해 우아한 어투로 당승과 선리(禪理)와 시구를 논했습니다. 그들의 몸짓에서는 요기(妖氣)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세속의 문인들보다 훨씬 통달해 보였습니다. 당승이 시를 짓고 선을 논하자

정령들은 하나같이 칭송했습니다. “성승은 재주가 뛰어나시고 선리가 깊으십니다! 성승께서는 선문의 고불(古佛)이십니다!” 당승은 안개와 노을이 감도는 목선암(木仙庵)에서 고상한 담론과 주변의 찬사를 들으며 서천(西天)으로 가는 험난함을 잠시 잊고 경계를 늦추었습니다. 이러한 ‘공경’과 ‘평온함’이야말로 이 시련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느슨한 환경을 통해 서서히 수행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행선(杏仙)이 나타나 절세가인의 용모로 애정을 고백하고, 네 노인이 곁에서 부추기자 이 부드러운 함정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승은 불문의 계율을 굳게 지키며 끝까지 따르지 않았고, 마침내 제자들이 찾아와 구해줌으로써 미색과 온정의 얽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련 속에서 당승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고, 중토(中土)에 태어나기 어려우며, 정법(正法)을 만나기 어려우니,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다행이다.”

대법 수련 속에서 환경이 완화됨에 따라 저 자신과 주변 수련생들에게서 어느 정도 나태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진하며 세 가지 일을 잘해내던 상태에서, 점차 매일 정법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며 수련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잊어버리게 됐고, 심지어 어떤 수련생은 평범한 삶을 ‘나름대로 즐기며’ 매일 어떻게 생활의 질을 높일지만 궁리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은 부드러운 작은 칼과 같아서 수련자의 의지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법공부를 하지 않고 수련생들과 교류하지 않으며 명혜망을 보지

않아 자신을 파룬따파와 단절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며 생활도 계속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법공부를 통해 오늘날 연장된 때 분 때 초가 사부님께서 무수한 고난을 감내하며 맞바꾸신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인 감옥, 구치소, 세뇌반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련생이 박해를 받고 있으며, 파룬따파는 계속 비방과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법이 끝나면 무지한 민중과 그들 배후의 방대한 생명체들은 영원히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이 세상에 내려올 때 세운 서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될 책망과 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어찌 시간을 아껴 정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의 수련 상태를 돌아보며 수련이 나태해진 뒤에 생겨난 깊이 감춰진 집착심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집착과 부족함을 드러내어 닦아버리고자 하며, 수련생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1. 진상을 알릴 때 상투적인 말을 사용함

예전에는 진상을 알릴 때 감히 입을 떼지 못했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명혜망에서 수련생들의 체험 교류를 보았는데, 어떤 수련생이 효과가 좋았던 진상 전달 ‘화술’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거리를 좁히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며 어떻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할지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며 외웠고 제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해 저만의 진상 화술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진상을 알릴 때 실제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

련생들이 저를 칭찬하면 저는 수련생들에게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상을 알리는지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똑같은 화술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떤 일반인이 갑자기 의문을 제기하면 말문이 막혀 답변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흔들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칭찬 속에서 우쭐해졌던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어느덧 기계적인 업무처럼 처리하고 있었고, 저 자신을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노동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이론 한 세트로 다 해결하려 했으며, 과거의 경험에 점점 더 집착하고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일에 어찌 틀에 박힌 모델이 있겠으며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오로지 진정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와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할 때에만 진상을 잘 알릴 수 있고, 그의 미혹을 깨뜨려 진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파룬따파가 우리에게 열어준 지혜가 어찌 진상을 알리는 한 가지 방식뿐이겠습니까? 천수관음(千手觀音)의 손마다 법기(法器)가 들려 있듯이, 우리에게 는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관건은 스스로 얼마나 마음을 쓰느냐에 달려 있으며,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자만하고 기뻐함

과거의 저는 과시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글을 써서 명혜망에 투고하면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발표되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확인했습니다. 발표되지 않으면 낙담했고, 일단 발표되면 제 깨달음이 얼마나 높은지, 인식이 얼마나 좋은지 자만하며 한동안 예전 인식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몇 년 뒤에 다시 읽

어보며 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능력이 있다”, “천목(天目)이 높이 열렸다”, “심성이 높고 깨달음이 좋다”며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것을 즐겼습니다.

저는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글의 발표 여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며 여기에는 반드시 제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성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글쓰기 기술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혹은 기연(機緣)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발표되더라도 환희심과 과시심을 내지 않도록 스스로 일깨우며 착실하게 수련해 서약을 이행하려 합니다.

3. 자신을 실증함

수련생들과 교류할 때 상대방이 과거에 박해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 중에 그 수련생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 마치 엄혹한 환경 속에서의 자기 모습을 그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는 파룬따파를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실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어떤 수련생이 평온하고 상서로운 태도로 정념(正念)으로 박해를 돌파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비인간적인 박해를 이야기하고 파룬따파에 대한 정신(正信)으로 이겨냈음을 말할 때, 제 천목에는 수련생 곁에 계신 사부님의 법신(法身)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사부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파룬따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겨났습니다.

이전에 명혜망에서 ‘수련을 처음처럼’이라는 주제의 교류 특집을 보고 큰 감동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 이 글을 마무리

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교란으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 수련 과정의 기록일 뿐이지만, 계속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일깨우는 경계로 삼고 싶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돌아보니 사부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수련을 처음처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련생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 안주하며 안으로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묻어두지 맙시다. 함께 더욱 정진해 나아갑시다!

사악한 마음을 품으면 향을 피워도 소용없다

글/ 린창칭(林長靑)

[명혜망] 간쑤성 텐수이(天水)시 옥천관(玉泉觀)에는 한 쌍의 대련(對聯)이 걸려 있다. 상련은 “마음이 사악하고 치우치면, 아무리 향을 피워도 조금의 이로움도 없다(存心邪僻, 任爾燒香無點益)”이고, 하련은 “몸가짐이 바르고 당당하면, 나를 배알하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라(扶身正大, 見吾不拜有何妨)”이다.

전통 신앙에서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는 제아무리 절하고 향을 피워도 조금의 이로움도 얻지 못하며, 광명정대한 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여긴다. 천지는 사람의 마음을 중히 여기고, 부처는 선악을 보며, 신명은 재물을 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부처를 믿고 도를 구하며, 방생하고 시주하는 이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나 일부는 도가의 조사에게 무릎을 꿇든, 불가의 부처에게 예배를 드리든 모두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있다. 어떤 이는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어떤 이는 죄를 면제받기를 원한다. 심지어 땅을 팔아 향을 피우거나 집을 팔아 절에 시주하는 이도 있는데, 과연 그들의 목적이 달성됐는가?

리보(李波)는 하얼빈시 아청구 공안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중공)을 추종해 파룬궁수련자들을 광적으로 박해했다. 그의 적극적인 지시나 가담으로 여러 수련자가 아무 죄 없이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리보는 건장한 체격으로, 뺨을 한 번 때려 사람을 기절시킨 적도 있다. 명혜망 2005년 1월 13일 보도

에 따르면, 수련자 타오홍메이(陶紅梅)가 납치됐을 때 리보 등은 그녀를 발로 차고 때리며 혹독하게 고문한 뒤 매달아 놓았다. 리보는 또한 수련자 리아이친(李愛琴), 판수핑(范淑萍), 푸위란(付玉蘭)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리보는 흉악하기가 마치 악귀와 같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의 딸은 오히려 불법(佛法)을 믿으며 선악에는 응보가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베이징의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절에 시주하기도 했다. 딸이 거액을 시주한 것이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병을 고치고 재앙을 없애기 위함이었는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안타깝게도 집을 팔아 시주하고 향을 피우며 염불한 것은 부친의 재앙을 막지 못했다. 평소 건강했던 리보는 2025년 1월 암 진단을 받았고, 4월에 병고에 시달리다 사망했다.[1]

건강했던 리보가 불과 4개월 만에 황천길로 떠난 것에 우리도 탄식을 금치 못한다. 그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고소해하거나 사적인 분노를 풀기 위함이 아니다. 리보 역시 피해자다. 중공의 박해 정책이 없었다면, 수련자들과 아무런 원한도 없던 그가 어찌 모함으로 시작해 하늘의 징벌로 끝을 맺었겠는가?

리보의 딸이 집을 팔아 절에 시주한 것을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부처에게 간구하는 마음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백만 금으로도 아버지의 악업을 해결하지 못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예로부터 부처를 비방한 죄는 산과 하늘처럼 무거운 중죄로, 천리가 용납하지 않아 사면되거나 경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리보의 악행이 가득 차 스스로 몸을 태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딸의 정성 어린 기도는 한 컵의 물로 수레의 불을 끄려는 것처럼

헛수고일 뿐이었다. 리보는 사악한 마음을 품었으니 딸의 시주도 소용없었다. 부모된 이들은 리보의 교훈을 거울삼아 자신의 악행으로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하지 말고, 자녀가 거액을 들여 속죄하게 만들지 말라.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복덕을 쌓아야지, 어찌 고통을 더해줄 수 있겠는가?

부디 기억하라. “마음이 사악하고 치우치면 아무리 향을 피워도 조금의 이로움도 없고, 몸가짐이 바르고 당당하면 나를 배알하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라.” 세상에서 마음이 흉험하면 향을 피워도 돌봐주는 이가 없고, 마음이 밝으면 절하지 않아도 은혜를 입는다.

당신과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진상을 받아들이고 읽어보길 바란다. 진상은 당신이 시비를 분별하도록 돕고 방향을 제시하며, 평안과 희망의 서광을 가져다줄 것이다.

주: [1] 명혜망 ‘전 하얼빈 아청구 공안분국 부국장 리보, 응보를 받아 사망’



▲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이 오클랜드 쿠메우 박람회에 참가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공법을 배웠다. 지역사회 순찰대 소속 폴(Paul)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진상을 전해온 것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공산주의는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으며 잔혹하고 부패한 제도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하다지만 실제로는 상층부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하층민들은 고통받습니다”라고 지적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22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925만 9863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